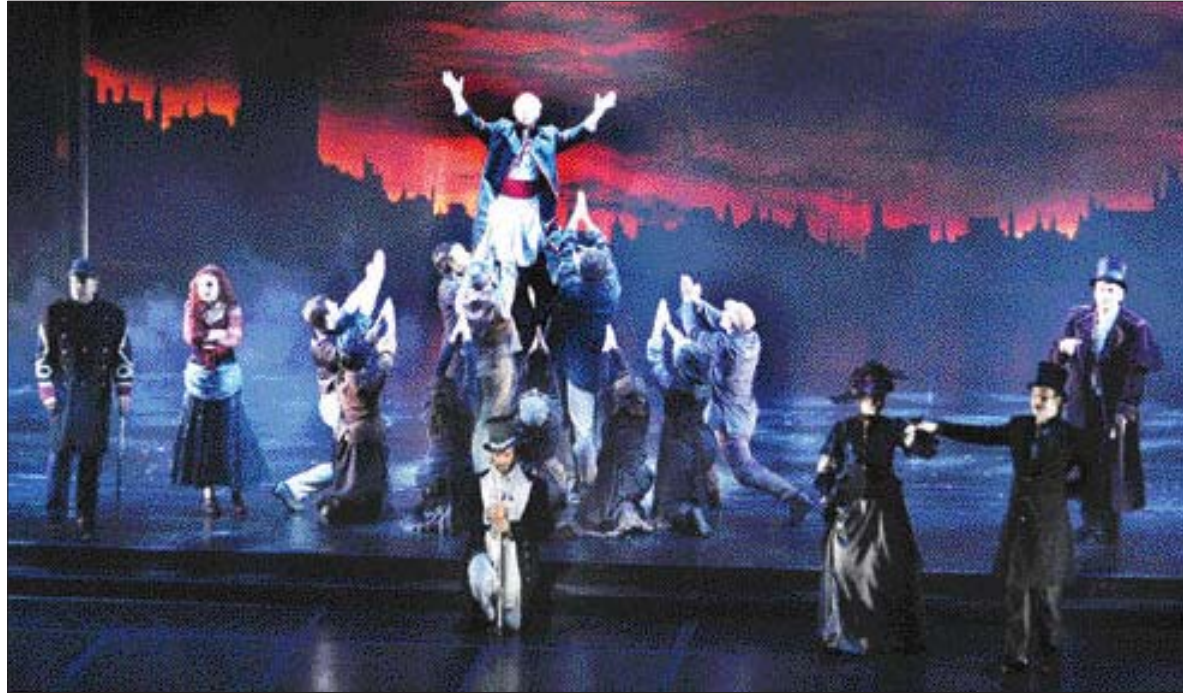


사회



25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지킬 앤 하이드' 공연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워직기자 jrwi@kwangju.co.kr

‘지킬 앤 하이드’ 광주 공연 감동의 무대

역시 명성 그대로였다. 2시간 30분에 이르는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의 환호성과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2009 광주국제공연예술제 공식 초청작으로 24~25일 이틀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무대에 오른 '지킬 앤 하이드'는 아름다운 뮤지컬 넘버와 배우들의 완벽한 연기로 극장을 찾은 5천여명의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가을날의 추억을 선사했다. 테너와 바리톤을 넘나들며 지킬과 하이드를 완벽하게 보여준 세계적인 뮤지컬 스타 브래드 리틀은 노래와 연기는 압권이었으며 특히 자신이 직접 실험 대상이 되기로 결정하면서 부르는 'This is the moment'와 지킬에서 하이드로 변신하면서 처음 부르는 'Alive'에서는 객석에서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또 'Once upon a dream', 'Someone like you', 'A new life' 등을 부른 여주인공 엠마와 루시 역시 뛰어난 가창력과 아름다운 음색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그밖에 간결하지만 작품의 의도를 제대로 살린 품격 높은 무대 세트와 앙상블들의 연기도 극의 완성도를 높였다. 공연을 관람한 김미정(38·광주시 서구 치평동)씨는 "귀에 친숙한 아름다운 음악들이 인상적이었다"며 "특히 세계적인 스타 브래드 리틀을 볼 수 있어 너무 행복했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흠런!” “이겼다!”... 광주가 ‘들썩’

“대학교육 수술 시급”

■ KIA 타이거즈 V10 시민 반응

술집·음식점 등 곳곳 야구팬 가득

“올 가을 KIA 야구가 있어 행복해”

‘호랑이 군단’의 한국시리즈 우승에 광주가 들썩었다. 광주시민들은 집이나 음식점, 호프집에서 서로를 얼싸안으며 12년 만에 우승트로피를 되찾은 KIA 타이거즈 선수들을 연호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KIA 선수단이 보내준 ‘행복 바이러스’ 덕에 찌든 일상의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모처럼 웃음꽃을 피웠다. 역경을 딛고 우승을 이뤄냈다는 감격과 긍지, 자부심이 가득 담긴 야구 이야기로 시간가는 줄 몰랐다. 한국시리즈 7차전 KIA-SK 경기

응원전이 열린 24일 오후 4시30분 광주시 동구 총장로의 한 음식점. 경기 시작 전부터 음식점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KIA 선수들이 안타를 칠 때마다 팬들은 서로 얼싸안고 환호성을 질렀다. 이날 시민들은 TV 중계를 지켜보며 경기 내내 마음을 졸였다. 아쉬움과 기쁨, 그리고 환호가 교차했다. 4시간27분 동안 팬들은 천장을 지옥을 오가며 열띤 응원을 보냈다. 동점상황에서 9회 말 마지막 KIA의 공격이 끝나자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이날 경기는 KIA의 6-5 역전승. 우승 축포가 밤하늘을 수놓자 팬들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그라운드로 뛰쳐나온 선수들은 우승 세레머니(ceremony)를 펼친 뒤 고개 숙여 팬들에 화답했다. 12년 만의 우승 소식에 상당수 팬들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김민호(31·광주시 북구 두암동)씨는 “그라운드에서 눈물을 흘리는 KIA 선수들을 보며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 졌다. 너무 기쁘고 좋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KIA 선수들이 광주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큰 빛이 된 것 같다”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이날 대형 TV가 설치된 광주시내 술집과 음식점 등은 야구팬들로 가득 찼다. 2010년 프로야구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 우승을 점치는 팬들도 적잖았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내친김에 내년 우승까지 기대하는 직장 동료가 많다”며 “선수들이 내년에도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IA 타이거즈 홈페이지도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강쇠’라는 이름의 한 누리꾼은 “KIA 우승에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구나,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강동화씨도 “자랑스럽다. KIA 팬이란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게재했으며, 김남근씨는 “이번 우승 장면은 소설보다 더 진하고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장면으로 길이 남을 것이다”라고 올렸다. 천영민씨는 “올 시즌은 KIA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 한-일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가 4강에 올랐을 때보다 더 감동적이었다. V10 신화는 너무 감동적이었다”라고 글을 남기는 등 축하 댓글들이 쏟아졌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김윤수 전남대 총장은 25일 “대학교육이 교양이든, 전공이든 쉽게만 진행되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해 대학은 대학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고등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리는 ‘대학 학부교육 강화 포럼’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오늘날 우리의 대학교육은 총체적 부실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총장은 “대학이 학습자가 원하는 교육만을 추구할 결과 교양교육은 시민 교양강화 수준으로, 전공 교육은 어려운 내용은 배제된 채 쉬운 과목 위주로만 진행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 지원 축소, 학교 운영비 상승 등으로 대학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학생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고 있다”며 “대학의 깊은 자성과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

오늘 날씨, 햇살로 여는 월요일, 기상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젊음이 있는 대학! 광신대학교

여수고·해남고·해룡고, 과학중점학교 지정,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남의 여수고와 해남고, 영광 해룡고 등 전국 14개 시도 53개 고교를 과학중점학교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다양한 부동산, 자동차, 생활용품 광고

독거노인 겨울나기 지체장애인 돕기성금 모금, 하늘의 벉을 따다, 355-81지구 회관 건립기금조성을 위한 박길무 시집출판 기념회